

# 땅끝 해남서 사계절 축제 즐겨요

28~30일 송호해수욕장 여름축제 연말까지 다채로운 축제 이어져 郡, 사계절 축제 관광상품 육성

“땅끝 해남에서는 사계절 축제가 열려요.” 해남군이 송호 해변에서 여름 축제를 열어 ‘사계절 축제’를 해남 대표 관광상품으로 키우기로 했다.

해남군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땅끝마을 송호해수욕장에서 ‘송호해변 여름축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민선 8기에서는 따로 열린 축제들을 계절별로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계절 축제 가운데 송호해변 축제가 여름 축제 대표주자로 나선다.

축제 기간 송호해수욕장에서는 울창한 소나무밭과 바다 너머 불꽃놀이와 해변 가요제 등이 열린다.

나른 백사장에서는 ‘워터밤’ 물놀이와 비눗방울 공연, 서커스 등 다채로운 행사와 무대가 펼쳐진다.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을 위해서는 놀이터와 식·음료장을 행사장에 마련했다.

송호해변 여름축제가 이어지는 9월부터 가을 축제가 잇따라 열릴 계획이다.

오는 9월8~10일에는 우수영 관광지에서 ‘명랑대첩축제’가 열리고, 10월7~9일에는 캠핑 명소 오시아노에서 ‘캠핑 박람회’와 ‘뮤직 페스타’가 진행



해남군은 ‘사계절 축제’의 하나로 오는 28~30일 땅끝마을 송호해수욕장에서 ‘송호해변 여름축제’를 연다. 송호해변에 마련된 휴식 공간. <해남군 제공>

된다.

11월3일부터 5일까지는 전남 대표 먹거리와 지역 농수산물만 만날 수 있는 ‘해남 미남축제’가 열린다.

연말에는 땅끝마을에서 ‘해남이 해맞이 축제’를 열며 사계절 중 겨울 축제를 마무리한다.

사계절 축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올해 봄(4~5월)에는 ‘달마고도 힐링축제’와 ‘어린이 공룡대축제’가 열렸다.

달마고도 힐링축제는 전국 걷기 여행객들의 ‘성지’로 자리 잡았고, 올해 처음 열린 해남 어린이 공룡대축제에는 2만5000명이 몰렸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 8기 해남군은 코로나 등으로 산발적으로 이어지던 축제를 계절별로 정착시켜 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해남 사계절 축제를 대표 콘텐츠로 개발하고 지역 유동 인구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성 기자 dia@kwangju.co.kr

## 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

###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이하 무안농관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7일부터 33일간 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한다.

휴가철 수요가 많은 쇠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목심 등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쇠고기의 경우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젓소)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쇠고기·돼지고기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고발되거나 과태료 처분의 조치를 한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김성담 무안농관원 소장은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쇠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의 심업체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목포 달맞이공원·평화광장 환경보존회 회원들이 바닷가 청소를 마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목포 평화광장 환경보존회, 해변 청소 구슬담

### 매달 두 번째 토요일 환경정화

목포 달맞이공원·평화광장 환경보존회(이하 환경보존회)가 인근 바닷가 청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목포 지킴이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장마철에 영산강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면서 각종 쓰레기와 심지가 커다란 나무까지 뿌리째 떠밀려와 바다 쓰레기장을 방불케 청소 봉사활동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에도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월 창립한 환경보존회는 매달 두 번째 주 토요일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는 한국해양소년단 전남서부연맹과 함께 쓰레기 수거 후 수상레저스포츠 체육행사까지 함께 실시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와 영암군 등 인근 지자체도 바닷가 청소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회원 대부분은 이 지역 주민자치위원장 등 주민들로 구성됐다. 주요 활동으로는 ▲구역 내 시설물 및 수목의 훼손에 대한 보호 및 신고 ▲근린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창출 및 건의 ▲구역 내의 오물 및 쓰레기 제거를 위한 봉사활동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근린공원의 개선 및 활성화 사업에 대한 협조 및 홍보 등이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 172년전 프랑스 교류 물꼬 산물 신안군 용기술병 복원 전시한다

나주목사 佛영사에 건넨 술병 주민들 똑같은 용기병 기증

신안군이 프랑스와 교류를 상징하는 용기 술병을 복원하고 전시할 예정이다.

이 용기 술병은 172년 전인 1851년에 프랑스 영사가 나주목사에게 받았다고 전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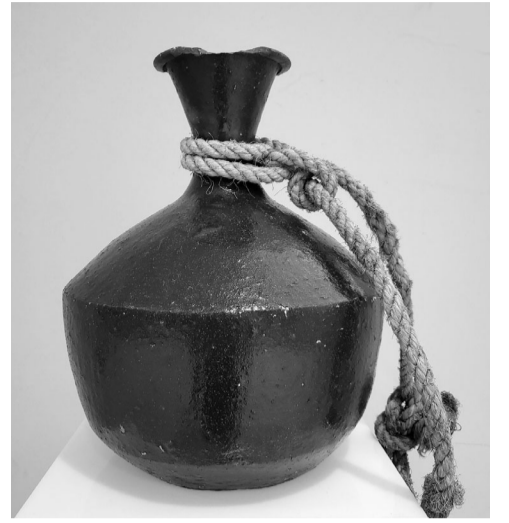
프랑스 북서부 르 아브르항에서 출항한 프랑스 고래잡이배 르 나르발(Le Narval)호는 1851년 4월 비금도에 해역에서 난파됐다. 조난된 선원 29명은 나주목사 겸 남평현감인 이정현(李正鉉) 등을 만났으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그 중 9명이 작은 배로 중국 상하이에 도착, 프랑스 영사에 구조를 요청했고 당시 프랑스 영사 몽티니(Charles de Montigny)가 구조 원정대를 이끌고 조선으로 출항했다.

제주도를 거쳐 비금도에 도착한 몽티니 영사는 걱정과 달리 선원들이 섬 주민들의 보호 아래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고 한다.

몽티니 영사는 조선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선원들의 송환을 요청했으며 떠나기 하루 전인 5월 2일에 이정현과 만나 한국 술(막걸리로 추정)과 삼페인으로 만찬을 했다. 이때 몽티니는 술이 담긴 용기 술병을 받았다. 이는 한국과 프랑스 첫 교류의 산물이다.

파리 세브르 국립도자기박물관에 전시된 이 용기 술병에 대한 이야기를 접한 신안군 비금도 신촌마을 최준섭 이장이 최근 집마다 술을 보관했던 용기병의 존재를 신안군에 알렸다.

최씨는 마을에서 예부터 사용해왔던 생활 물품인 용기병을 최씨는 신안군에 기증했다.



프랑스와 교류의 상징 용기 술병.

비금도에는 몽티니 영사가 받은 것과 비슷한 용기병이 집마다 보관되어 있는데, 술을 담아두었다가 주둥이가 깨지면 깨진 주둥이를 술오토막아 식초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고 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몽티니 영사가 받은 술병은 오래전부터 비금도 주민들이 사용해왔던 술병”이라며 “프랑스와의 교류에서 우리 전통 심문화가 사용된 점에 의의를 가지고 용기 술병을 복원해 군청과 비금도사무소에 각각 전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프랑스가 막걸리와 삼페인을 교환하면서 교류가 시작되었음에 의미를 두어 비금도에 기념공원을 조성하고 폐교 등 유휴시설을 단장해 삼페인박물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진도 대파로 만든 햄버거 맥도날드 매장 인기

### 농가 48가구 생산 50t 납품

진도 대파로 만든 햄버거가 전국 맥도날드에서 인기몰이하고 있다. <사진>

진도군은 맥도날드와 손잡고 햄버거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를 선보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맥도날드는 진도 선진농협 소속 농가 48가구가 생산한 대파 50t을 이 햄버거 상품에 만드는 데 쓰고 있다.

진도군과 맥도날드는 지난 3월부터 ‘진도 대파 버거’를 출시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상품 출시는 맥도날드가 지역 농가 식재료를 이용해 음식 풍미를 살리고자 진도군 측에 대파 납품을 의뢰하면서 성사됐다.

진도 대파는 해풍을 맞고 자라 풍부한 맛과 식이 섬유 등 영양분을 자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리적 표시 61호로 지정·등록됐다.

지난해 진도 대파 생산량은 4만5654t으로, 진도는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다.



지난달에는 CU편의점이 진도 대파를 이용해 만든 간편식 3종(김밥·도시락·핫도그)이 출시되기도 했다.

편의점 3종 간편식을 만드는 데는 진도 대파 30t이 쓰였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하고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해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하여 대파 소비 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